

가칠장(假漆匠)의 성격과 역할

The character and role of Gachiljang(假漆匠)

장 영 주

Jang, Young-Joo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박사수료)

류 성 룡*

Ryoo, Seong-Lyong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Gachiljang(假漆匠), along with Jinchiljang(眞漆匠), is an important craftsman who cannot be left out during the finishing process of wooden furniture and wooden building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current definition of Gachiljang does not properly explain the nature and role of Gachiljang. In many related terminology dictionaries, Gachiljang is defined as “artisan who dose the base paintwork of Dancheong.” But an analysis of the Joseon Dynasty’s Uigwe(儀軌) shows that Gachiljang appears frequently in works that are not related to Dancheong at all. Therefore the current definition seems to be inaccurate and need to be revised. Gachiljang is a name that contrasts with Jinchiljang, and he makes and paints Myonggyu(明油). Just as Jinchiljang uses not only lacquer but also various pigments to paint colorful lacquer, Gachiljang also uses various pigments to decorate buildings or furniture in a fancy way and then finishes with a transparent paint. Even in the Dancheong(丹青) work of the building, all the base painting and finish coating work will be in charge of Gachiljang, except for the paintings performed by the Whawon(畫員) or the Whasa(畫師).

주제어 : 가칠장(假漆匠), 명유(明油), 진칠장(眞漆匠), 무명석(無名石), 들기름, 건성유

Keyword : Gachiljang, Myonggyu, Jinchiljang, Pyrolusite, Perilla oil, Drying oil

1. 서 론

가칠장(假漆匠)은 건축과 가구 제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시대의 장인으로 이들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으로 건물과 가구의 마감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가칠장에 대한 현재의 인식은 ‘단청의 밑칠을 하는 장인’으로 보통 규정하고 있다. 의궤용어사전¹⁾에는 가칠장(假漆匠)을 ‘가칠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도장공, 가칠은 단청시공에서 단청을 칠하기 전에 미리 목재에 바탕칠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는 ‘가칠(假漆)은 단청 시공에서 특정 부재의 바탕면을 운통 특정한 색으로 칠하는 작업으로 바탕칠이라고도 한다. 가칠장은 가칠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으로 주석²⁾되어

있다. 이러한 가칠장에 대한 규정은 건축 관련 서적이거나 논문 등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왕조의궤에는 가칠장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어 이들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데 단청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왕실가구의 제작에 가칠장이 더 많이 활동하고 있어 가칠장을 단청의 밑칠을 하는 장인으로만 규정해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조선왕조의궤는 조선 초부터 작성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모두 사라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작성된 것만 남아있다.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일본 궁내청 등에 모두 606종이 남아 있으며 책 수로는 3,000여 책³⁾에 달한다. 의궤에서 가칠장은 건물 조영과 관련된 영건의궤(營建儀軌)나 산릉도

* Corresponding Author : ryoosl@korea.ac.kr

2) <https://db.itkc.or.kr/> ‘가칠장’ 주석

3) 보물 제 1901호 지정 조선왕조의궤 1,757건 2,751책 및 외규장각 의궤 297책

1) 여찬영 외, 『의궤용어사전1』, 경인문화사, 2012, 32쪽

감의케 등에는 당연히 등장하고 있으며 가례도감, 국장도감, 진연의케, 악기조성청의케 등 거의 모든 의케에 빠짐없이 등장해 가칠장이 나오지 않는 의케를 찾기가 오히려 힘든 형편이다.

가칠장에 대한 현재의 사전적 이해와 이러한 정의의 사용은 가칠장의 성격과 역할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건물의 단청작업과 목재보호를 위한 마감작업에 대해 상세한 연구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송례문 복원과정에 가칠장(假漆匠)이 참가할 수 없었으며 가칠장이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단청작업은 가칠장이 바탕을 정리하고 아교포수(阿膠泡水) 후 가칠을 완성한 상태에서 화공(畫工)이 다양한 그림과 색을 입힌다. 화공의 역할은 단청의 문양과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완성된 단청그림 위에 그 단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다시 가칠장이 맡게 된다. 현재는 가칠장의 명맥이 끊어져 있고 가칠장이 사용한 유칠(油漆)도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송례문 복원과정에서는 전통복원이라는 명분 아래 화사(畫師, 현재의 단청장)가 전통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가칠장을 겸하게 되었다. 송례문 단청박락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칠장이 져야 하나 가칠장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연구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가칠장의 성격과 역할을 영건의케를 비롯하여 국장도감의케, 가례도감의케 등 다양한 의케의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가칠장이 사용했던 명유(明油)의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전통 비(非)웃칠 건성유(乾性油)도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문헌으로 살펴본 가칠장(假漆匠)의 성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가칠(假漆)장이를 등재어로 신고 있는데 ‘단청을 애벌로 칠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칠장에 대해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화성성역의케 건축용어집이다.

가칠장

가칠은 단청 시공에서 특정 부재의 바탕면을 온통 특정한 색으로 칠하는 작업이다. 바탕칠이라고도 한다. 가칠장, 혹은 가칠장이는 가칠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도

장공이며 가칠작업의 책임자는 가칠변수라 한다. 오늘날에는 단청장이 가칠까지 직접 맡아 하지만 목조 건물 일이 많았던 옛날에는 필요에 따라 가칠만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이 있었던 것이다. “화성성역의케” 권4에는 서울과 수원부의 가칠장 48명의 명단과 일한 날 수가 기록되어있다.

가칠에는 부재별로 뇌록, 석간주, 정분, 황토, 옥색, 삼청 등이 사용되었다. 뇌록은 창방 이상의 부재에 도채하여 문양의 바탕을 만들고, 석간주는 기둥, 합각, 풍판 등에 폭넓게 가칠되었으며, 정분은 벽화를 그리는 면에 쓰인다. 가칠만으로 마무리하는 가칠 단청은 부재의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장 낮은 등급의 단청 방식이다. 부재의 면담기를 한 후 바탕 면에 교착제를 바르고 건조된 후 다시 바탕칠을 하고 바탕칠이 완전히 마른 후에 각 부재에 적용되는 색으로 다시 2회 이상 가칠한다. 최근에는 채색을 여러 번 올리는 금단청, 모로단청에서 도채의 피막이 두꺼워져 색이 쉽게 떨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피하고자 바탕칠을 생략하는 경우도 늘어났다.⁴⁾

가칠장이 하는 일 중에는 단청의 바탕색을 칠하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가칠장의 책임자는 가칠변수(假漆邊首)라고 불렀다. 동대문상량문에 가칠장의 우두머리인 가칠변수라는 직책이 기록되어 있었다.⁵⁾ 가칠장을 단청의 밑칠을 하는 장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러 자료에 바탕한 것이다. 경북궁영건일기에는 가칠장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假漆匠 塗柱椽椽樑之初次丹青(가칠장 기둥, 서까래, 들보에 첫 번째 단청을 한다)⁶⁾

의케마다 가칠장이 등장하고 있지만 가칠장이 하는 일에 대해 이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록은 다른 의케에서는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의케에서 단청의 초칠을 가칠(假漆)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가칠장은 단청의 밑칠을 하는 장인으로 성격 규정을 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러한 정의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건의케를 제외한 가례도감의케나 국장도감의케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케에서는 가칠장이 하는 일은 이와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 상탁(床卓)과 목제기물의 제작 수리과정에서 마감 칠을 만들고 만든 칠을 기물에 바르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단청의 바탕칠과는 상관이

4)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케 건축용어집』, 2007, 324쪽

5)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81호, 단청. 1970, 12월 조사

6) 『경북궁영건일기』, 을축년(1865년) 5월 18일 기록

없기 때문에 경북궁영건일기의 가칠장의 역할과는 명확히 다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가칠장의 정의는 이들 조선시대 가칠장들의 실제 업무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왜 이런 혼선이 생긴 것일까? 그 혼선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경북궁영건일기의 각 장인의 업무에 대한 규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록이 조선시대 가칠장의 성격과 역할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건일기에는 가칠장 뿐 아니라 목수, 석수, 선장(船匠), 목혜장(木鞋匠), 안자장(鞍子匠) 등의 역할도 기록하고 있다. 선장(船匠)은 배를 만드는 장인, 목혜장(木鞋匠)은 나막신을 만드는 장인, 안자장(鞍子匠)은 말안장을 만드는 장인이다.

船匠 善使大斫耳鑿大孔(선장 큰 자귀를 잘 다루고 큰 구멍을 뚫음)

木鞋匠 斫貢踏邊面(목혜장 공포의 변면을 잘라냄)

鞍子匠 以弓錐穿椽木孔(안자장 활비리로 서까래에 구멍을 뚫음)⁷⁾

여기에서 배를 만드는 장인임이 명확한 선장(船匠)의 업무(所掌)는 자귀를 다루고 큰 구멍을 뚫는 것으로 적고 있다. 목혜장(木鞋匠)은 공포의 옆면을 잘라내는 업무를 하고 안자장(鞍子匠)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것이 그들의 업무(所掌)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장인이 본래 하는 일인 배 만들기, 나막신 만들기, 말안장 만들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북궁을 새로 지으면서 배를 만드는 선장(船匠)을 데려와 큰 구멍을 뚫는 일을 맡긴 것이며 안장 만드는 장인을 데려와 서까래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장(船匠)은 배를 만드는 장인이나 임시로 자귀를 다루고 큰 구멍을 뚫었을 뿐이며 안자장(鞍子匠)은 본래 안장을 만드는 장인이나 경북궁중건사업에서는 임시로 서까래에 구멍 뚫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건일기에 적힌 장인의 일은 그 장인이 본래 하던 일이라기보다는 경북궁 건축에서 맡은 역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가칠장이 단청의 밑칠을 하는 것은 경북궁 건축 시에 맡은 업무의 하나로 보아야지 가칠장이란 단청 밑칠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정의 내려서는 곤란하다. 목혜장(木鞋匠)을 나막신 만드는 사람이 아닌 공포의 측면을 잘라내는 사람이라고 항상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과 동일하다. 가칠장의 역할을 알 수 있는 뚜렷한 묘사는 일성록에 등장한다. 정조 8년 형조에서 격쟁을 벌인 자를 처벌하기를 주청하는 기록 속에 가칠장이 등장한다.

南部居盤匠金鼎澤。擊錚於衛外。故取考其原情。則以爲。渠等以假漆匠。付於繕工監。未知幾百年。而所謂白骨小盤。自鄉造來者。買得着漆。男負女戴。呼唱街巷。以此生涯⁸⁾

(남부에 사는 소반장 김정택이 위 밖에서 격쟁하므로 그 사정을 들어보니 그들은 가칠장으로 선공감에 붙어 있는 지가 몇백 년 된 지 모르는데 백골소반이라고 하는 것을 시골에서 만들어 온 사람에게서 사서 칠을 하여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거리에서 소리쳐 팔아서 생계를 꾸려왔다.)

소반을 사서 칠을 해서 도로 파는 소반장이 자신을 가칠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공감은 토목, 영선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으로 소반장 김정택은 선공감에 붙어 가칠장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왕실의 소반이라면 단청에 사용하기도 하는 주사(朱砂)를 이용해 주칠을 하지만 일반 민간이 사용하는 소반은 선명환색이나 단청색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성록에 등장하는 가칠장은 단청 밑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일성록에 등장하는 가칠장은 소반에 칠을 하는 사람인데 옷칠이 아닌 값싼 가짜칠(假漆)인 명유(明油)칠을 하는 장인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칠장은 대한제국 시기까지 문헌에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한제국 시기인 광무 5년(1901년) 관보⁹⁾와 사범품보에 불을 낸 가칠장을 처벌하는 결정이 실려있다. 이 기록을 통해 가칠장들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피고 배문관, 최기흥, 김성업, 이용직은 모두 가칠장으로 일해왔는데 진전의 봉안 택일이 다가왔으나 복도 수리 후 단청이 미비하여 도감이 거듭 엄하게 타이르자 피고들은 함께 재실 내로 들어가 힘을 다해 일을 했다. 그런데 사용하던 명유가 부족하게 되자 일꾼 장완동에게 급히 기름을 끓이도록 시켰는데 갑자기 임시가옥에서 불이 난 소리가 들리자 놀라고 두려워 엎어지며 내려오니 기름 솥 중에 불이 더욱 심하고 이어 임시가옥을 불태웠다.¹⁰⁾

8) 『일성록』 정조8년(1784년) 5월 7일

9) 『관보』, 제1946호, 1901년 7월 23일

10) 被告表文寬崔基弘金性業李容植俱以假漆匠舉行而眞殿奉安擇日在即以復道修理後丹青未備都監申飭截嚴被告等并入內齋室盡力舉行而所用明油適乏使募軍兒蔣完童急煎油忽聞假家失火不勝驚悚顛倒下來則

7) 『경북궁영건일기』, 을축년(1865년) 5월 18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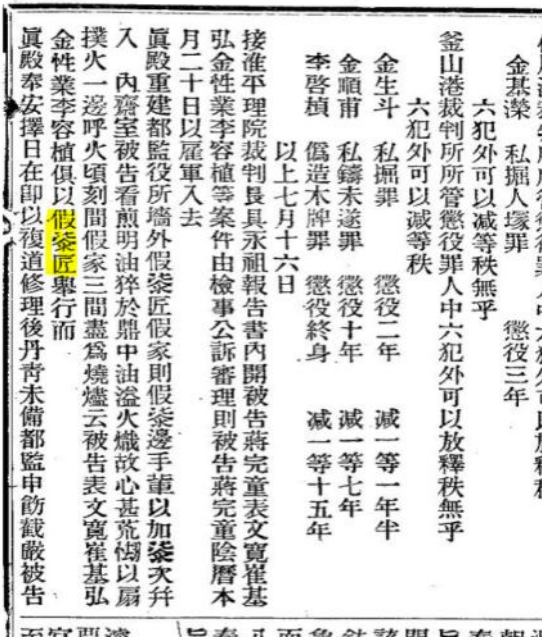


그림 1. 대한제국 『관보』 제1946호

어진을 봉안하는 진전(眞殿)¹¹⁾을 증진하기 위해 가칠장들이 복도 단청작업을 하던 중 사용하던 명유가 떨어지자 일꾼에게 이를 끓이라고 지시했는데 끓이던 기름에서 불이 나 가칠장 숙소를 불태웠던 것이다. 불이 나기 직전 가칠장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단청 밑칠인 가칠이 아니라 단청의 그림이 완성되고 단청표면을 코팅하기 위해 도료인 명유(明油)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유는 단청의 바탕칠에는 사용되지 않는 도료이기 때문이다. 들기름에다 금속성 산화촉진제 성분이 들어있는 무명석, 황단 등을 섞어서 끓여 건조시간을 빠르게 한 것이 명유인데 가칠장들이 명유를 제조하고 바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칠장이란 명칭은 단청의 바탕칠인 가칠을 다루는 장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짜 옷칠인 가칠(假漆)을 다루는 장인이란 이름에서 나온 것일 확률이 더 높다.

3. 조선왕조의례(儀軌)를 통해 본 가칠장(假漆匠)의 역할

의례는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져 왔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의례는 전란으로 남아있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의례 중에는 1600년에 편찬된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

의례(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가 가장 이른 것이다. 가칠장(假漆匠)은 1608년 만들어진 『선조국장도감의례』에 처음으로 등장한¹²⁾ 이후 대한제국시기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국대전』에는 가칠장은 보이지 않고 상의원과 군기시에 유칠장(油漆匠)이 소속되어 있다¹³⁾. 유칠장은 명유장(明油匠)으로도 불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인 세종과 세조시기에 군기감에 속한 장인으로 명유장이 실록의 기록에 등장한다. 유칠장이란 명칭은 현재 남아있는 의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명유장은 17세기초까지 사용되고 있다. 『선조국장도감의례』에서는 명유장(明油匠)과 가칠장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1633년 발간된 『창경궁수리소의례』를 마지막으로 명유장(明油匠)이란 명칭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가칠장이 명유장의 역할까지 하게 된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조선왕조의 의례에서 가칠(假漆)이 등장하지 않는 의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일부 실록청의례(『영종대왕실록청의례』, 『헌종대왕실록청의례』, 일부 묘호도감의례(『선조묘호도감의례』), 『어용도사도감의례(御容圖寫都監儀軌)』의 경우 가칠이나 가칠장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유(明油)나 유칠(油漆)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가칠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가례, 흥례, 영건의례, 악기조성청의례 등 거의 모든 의례에 가칠(假漆)이 등장하고 이를 다루는 가칠장 역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다. 외규장각의례 297책 중에서 가칠장(假漆匠)은 454건 검색¹⁴⁾되고 있다. 의례에 기록된 가칠장 소요물품을 분석해보면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1. 가칠장(假漆匠)의 소요물품

가칠장들이 필요한 물품들은 의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붓을 만들기 위한 돼지털(家猪毛), 말꼬리로 만든 체(馬尾篩), 동이(陶東海), 소래기(陶所羅), 방구리(方文里), 바가지(瓢子), 걸레(扨乃) 등이 보편적이다. 『순조대왕궁장도감의례』에서는 어깨에 메는 통과 붓에 사용하는 말 수염, 칠이 튀는 것을 막는 천과 땀감 7단이 추가되었다. 땀감은 명유를 끓이기 위한 것이거나

自油鼎中火益熾盛延燒假家

11) 덕수궁 선원전(璿源殿)을 말함. 1897년 완공되었으나 1900년 불에 타 1901년 영성문(永成門) 안쪽 즉 현재의 덕수초등학교 맞은 편에 새로 건립하였음

12) 김현중, 「조선시대 옷칠 정책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00쪽

13) 박지혜, 「한국유칠의 전통기법과 재현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4쪽

14)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례 홈페이지 '假漆匠' 검색 <https://www.museum.go.kr/uigwe/home>

아교를 증탕하기 위한 것인데 주로 명유를 끓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정순황후가례도감의궤』에서는 명유를 끓이기 위한 작은 솥이 들어가 있다. 『현종세자책례도감의궤』에서는 땀감과 무명석(無名石)이 소요 물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무명석은 명유를 끓일 때 넣어 명유의 건조를 촉진시키는 광물이다.

假漆匠所用 陶東海四坐 陶所羅四坐 方文里十箇 擔桶一部 馬尾飾一部 馬鬣五兩 家猪毛一斤 破帳二幅 燒木七丹
- 순조대왕국장도감의궤(1834)

(가칠장 소요물품, 등이 4개, 소래기 4개, 방구리 10개, 담통 1개, 말꼬리체 1개, 말수염 5냥, 집돼지털 1근, 못 쓰는 장막 2폭, 땀감 7단)

假漆匠所用 家猪毛四兩。方文里三箇。明油小鼎一坐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1759) 일방(一房)의궤

(가칠장 소요물품, 집돼지털 4냥, 방구리 3개, 명유 끓이는 작은 솥 1개)

假漆匠所用 陶所羅二 陶東海大二小五 瓢子一 家猪毛三兩 燒木二丹 無名石二合

- 현종세자책례도감의궤(1651)

(가칠장 소요물품, 소래기 2개, 큰 등이 2개, 작은 등이 5개, 표주박 1개, 집돼지털 3냥, 땀감 2단, 무명석 2합)



그림 2. 무명석(저자 촬영)

의궤에서 가칠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보면 체로 거르고 붓을 이용해 무언가를 칠하고 땀감을 이용해 명유를 끓이는 등의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궤에 등장하는 명유소정(明油小鼎)은 단청을 하는 화사(畫師), 옷칠을 하는 진칠장 등을 비롯한 다른 어떤 장인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가칠장만이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유(明油)를 만들고 칠하는 일은 가칠장이 전담하는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탁자나 목제품을 칠하는 경우에는 더욱 명유를 사용하

는 빈도가 높다. 『효종국장도감의궤』(1659)에 의하면 국장에 사용되는 각종 상과 탁자를 가칠하는 데 명유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땀나무로 끓여 만들어 사용한다.

各樣床卓假漆時, 明油一斗, 煮取所用燒木三丹 - 효종국장도감의궤 1방의궤(1659)

(각종 상과 탁자를 가칠할 때 명유 1말, 끓이는데 쓸 땀나무 3단)

各樣床卓假漆時, 明油煮取所用, 大鼎一坐 - 효종국장도감의궤 3방의궤(1659)

(각양 상과 탁자 가칠할 때 명유 끓이는데 쓸 큰 솥 1좌)

여기에서 가칠(假漆)이란 옷칠이 아닌 칠을 말한다. 옷칠은 진칠장(眞漆匠)이 담당하고 옷칠이 아닌 유칠(油漆)만 가칠장이 담당하게 되는데 진칠장, 가칠장의 구분이 없이 칠장(漆匠)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한사람이 옷칠과 유칠을 같이 하기도 한다.

3-2. 영건의궤(營建儀軌)에서의 가칠장(假漆匠)과 화사(畫師)의 역할분담

건물을 짓는 영건의궤에서는 가칠장이 단순히 명유 칠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물품이 달라지게 된다.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의 사당을 짓는 과정을 기록한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1824)에는 가칠장의 역할과 단청장인 화사의 역할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각각의 소요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단청을 칠하기 전 가칠 작업에 소요되는 물품과 가칠작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다. 단청 가칠 시에 필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假漆所入 磊礫四十斗四升 丁粉九斗 松油五斗以上卜定 阿膠四十斤煮取 明油三斗二升 黃蜜松脂各二兩 家猪毛一斤十一兩 細繩三兩 礮朱紅五十六斤 黃州朱土二十五斤八兩及一斗五升 石礪朱三十斤六兩四錢 松煙三斤 畫水筆各五柄 骨灰一斗 太末一斗三升 炭十三斗卜定。 破帳五尺 馬尾飾一部 -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1824)

(가칠에 들어가는 것, 석록 40말 4되, 정분 9말, 송유 5말 이상 반드시 바칠 것, 아교 40근 끓여 만들 것, 명유 3말 2되, 황밀, 송진 각 2냥, 집돼지털 1근 11냥, 가는 줄 3냥, 반주홍 56근, 황주주토 25근 8냥과 1말 5되, 석간주 36근 6냥 4전, 소나무 그을음 3근, 그림붓, 수필 각 5자루, 땀 가루 1말, 콩가루 1말 3되, 숯 30말 반드시 바칠 것, 못 쓰는 장막 5척, 말꼬리체 1부)

석록(磊碌)은 초록빛 안료로 단청 밑칠에 사용되고 정분(丁粉)은 하얀 안료로 단청색이 밝게 되도록 바탕에 칠하는 용도이다. 반주홍(礮朱紅), 황주주토(黃州朱土)와 석간주(石礪朱)는 붉은색 안료이며 소나무그늘음(松煙)은 검은색 안료로 사용된다. 뽕가루, 콩가루, 숯은 단청을 칠할 바탕 나무의 틈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물품들이다. 아교는 이런 안료를 바르기 전에 나무에 미리 바르고 또 안료에 섞어서 안료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교착제 역할을 한다. 명유(明油)는 단청 색이 모두 입혀진 위에 투명한 코팅을 입히는 마감제로 사용된다. 사당을 짓는데 명유 3말과 아교 40근이 필요한데 이중 명유는 가칠장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단청이 칠해질 부위의 사전 틈메우기도 역시 가칠작업의 범위 속에 들어가 있다. 가칠장의 역할은 단청의 바탕색을 칠하는 것 이외에도 단청이 들뜨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준비작업과 단청이 오래 지속되도록 표면에 코팅을 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1970년의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에서는 가칠장이 하는 일을 보다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가칠장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가칠장의 역할에 대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기둥, 주두, 공포, 대들보, 서까래 등 木部와 栱包벽 後佛壇등 단청할 부분은 먼저 아교나 부레풀을 얇게 타서 골고루 칠한다. (金泥, 金箔할 바탕에는 부레풀만을 바른다.) 가칠하는 것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假漆匠이라고 하고 여럿의 가칠장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를 가칠변수라고 부른다. 가칠장을 속어로 “개칠쟁이”라고 한다. 이들은 가칠을 할 뿐만 아니라 허드렛일(닦기, 滌膠, 調色, 打粉등)도 도맡아 한다.

施彩나 彩畫가 끝났을 때 木部에는 오동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桐油 = 油桐, 건성의 기름)을 인두로 지지면서 도포한다. 동유는 방수성이 강하여 동유를 먹인 동유지는 갓모나 비옷에 쓰이기도 한다. 간혹 明油나 法油를 붓으로 칠하여 바르기도 하나 그것은 차상의 방식이다.¹⁵⁾

가칠장이 단청을 입힐 나무를 닦고 아교칠을 하고 바탕칠을 하며 단청의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위에 건성유를 바르는 일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조선시대에도 거의 비슷하게 행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선왕조의례에서는 단청작업에서 명유(明油)만 사용되고 있고 동유(桐油)가 사용되는 경우는 발

견되지 않고 있다. 화사나 화공이 단청작업에 사용하는 물품들은 다음과 같다.

丹青所入 倭朱紅四兩內出。 唐朱紅三斤十二兩 荷葉五斤 眞粉四斤 同黃一斤 黃丹六斤 石紫黃六兩 青花墨二十丁片 臙脂四十片 二青十五兩 三礪四斤 松煙二斤 阿膠九斤 煮取。 丁粉三斗卜定。 炭一石一斗五升卜定。 石礪朱十四斤六兩 黃蜜一兩 四油菴一番 草油紙三張 畫筆三十三柄 黃筆二柄 眞墨一丁 紬布手巾各一件 揮帳二浮 破帳七尺 唐磁碗二箇 唐沙鉢甫兒各三竹 唐櫟匙二竹 沙莫子三箇 木莫子十箇 長剪板一箇 小剪板十箇 - 현사공벌묘영건도 감의계(1824)

(단청에 들어가는 것, 왜주홍 4냥, 당주홍 3근12냥, 하엽 5근, 진분 4근, 동황 1근, 황단 6근, 석자황 6냥, 청화묵 20개, 편연지 40개, 이청 15냥, 삼록 4근, 송연 2근, 아교 9근 끓여 만들 것, 정분 3말 반드시 바칠 것, 숯 1섬 1말5되 반드시 바칠 것, 석간주 14근6냥, 황밀 1냥, 4유둔 1개, 초유지 3장, 화필 33 자루, 황필 2자루, 진묵 1개, 명주수건 1개, 휘장 2개, 파장 7척, 당사완 2개, 당사발, 보아 각 3개, 당접시 2개, 사막자 3개, 나무막자 10개, 장전판 1개, 소전판 10개)

왜주홍, 당주홍, 편연지, 석간주는 붉은 안료, 하엽, 삼록은 녹색안료, 진분, 정분은 흰색안료, 동황, 황단, 석자황은 노란색 안료, 이청, 청화묵은 푸른색 안료이다. 진묵, 송연은 검은색 안료이며 아교는 안료를 개는데 사용하고 탄은 아교를 끓이는 데 사용한다. 사발, 접시, 막자 등은 안료를 가루내고 개는데 사용하고 화필, 황필은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된 것이다. 유둔과 초유지 등은 방수되는 종이로 물감이 떨어져 주변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보인다. 소전판과 장전판은 단청의 밑그림을 깔고 올려낼 때 바닥에 까는 받침판이다. 명유는 화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처럼 가칠장과 화사가 사용하는 물품은 차이가 있는데 이로 미루어 가칠장은 나무의 표면처리, 가칠, 명유 도포를 하고 화사나 화공은 오로지 단청의 그림과 문양만 입히는 것(彩畫)으로 볼 수 있다. 1970년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에서도 가칠장과 화원이 분업하여 일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대체로 分業하여 진행된다. 調色, 닦기, 假漆은 假漆匠이 하고 畫工은 朱, 礪, 靑, 墨, 粉, 黃을 한사람이 한가지씩 들고 草象에 지정된 자기의 색을 찾아 施彩하여 나아간다. 다른 색을 든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며 역시 자기에게 지정되어 있는 草象의 彩區에 맡은 색깔만을 칠한다.¹⁶⁾

15)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81호, 단청. 1970, 116쪽

16)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81호, 단청. 1970, 116쪽

그러나 단청작업의 분업이 이 기록처럼 1970년 무렵 까지 행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단지 전해져오는 작업방식에 대한 전언을 기록한 것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현재의 단청장들이 1970년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의 기록처럼 작업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승례문 단청복원 작업에서 아교를 제조해 사용할 기능인이 없어 일본산 아교를 수입해 사용하였고 명유를 만들 수 없어 수입 텡오일(Tongoil, 桐油)을 표면코팅제로 사용했다. 단청 작업에서 아교제작과 포수, 명유도포는 모두 가칠장이 맡은 일인데 가칠장에 대한 전승은 오래전에 사라져 1970년대 활동했던 현재의 단청장들의 스승도 그 기능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3. 가칠장(假漆匠)의 명유(明油) 제조와 사용

가칠장(假漆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칠(假漆)을 만들고 그 가칠을 칠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칠장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땀감(燒木), 솥(大鼎), 화로(土火爐), 무명석(無名石) 등이 의뢰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의 가칠은 단청의 바탕칠을 말하는 가칠보다는 단청의 마감 코팅제로 사용된 투명칠을 말한다. 칠(漆)이란 옷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옷칠이 아닌 다른 칠은 가짜칠인 가칠(假漆)로 불리게 되고 가칠이 등장하면서 옷칠은 진짜 칠이란 진칠(眞漆)로 구별된 것으로 보인다. 가칠장들이 만들었던 가칠은 유칠(油漆)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들기름에다 무명석(無名石), 황단(黃丹), 백반(白礬)을 넣고 끓여서 만드는 것으로 의뢰에는 기록되어 있다.

明油七升煮取所入 法油九升一合 黃丹二兩二錢 白礬二兩二錢 燒木二丹 無名石二兩二錢¹⁷⁾

(명유 7되 끓이는데 들어가는 것, 들기름 9되1홉, 황단 2냥2전, 백반 2냥2전, 땀나무 2단, 무명석 2냥2전)

명유(明油)를 만들기 위해서 들기름에 황단, 백반, 무명석을 넣고 끓여야 한다. 위의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들기름 한 되에 황단, 백반, 무명석 각 2.4돈(약 9g)의 비율로 넣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황단은 사산화삼연(Pb₃O₄)이 주성분¹⁸⁾으로 납 성분이 들

어있는 물질이며 무명석은 망간과 철, 티타늄, 바륨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광물¹⁹⁾이다. 황단은 납을 도가니에 넣고 고온에서 녹여 식혀서 만든 것으로 피부 화농성 질병에 사용되기도 한 물질이다. 무명석은 오래된 호수나 바다의 바닥에 침전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주 인근에서 산출되었다²⁰⁾. 무명석은 창상이나 자상에 바르는 약재로 동의보감에 실려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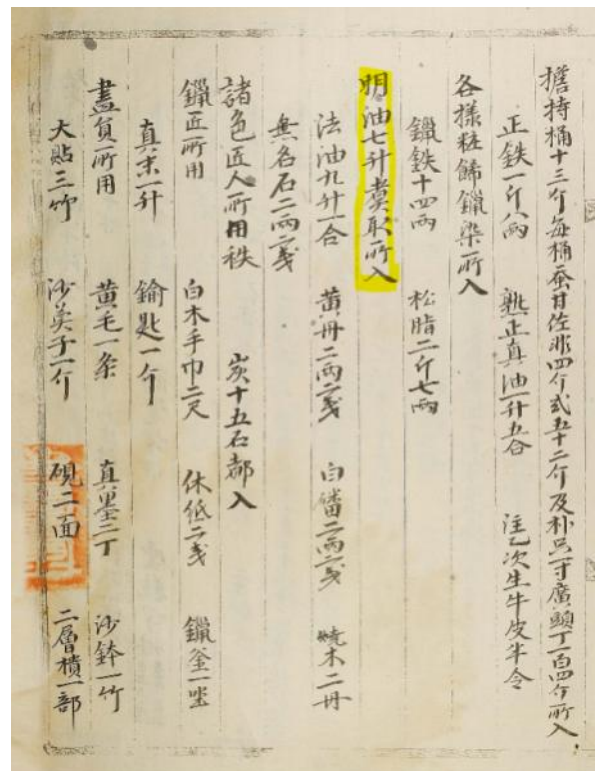


그림 3. 숙종세자책례도감의례(1667)

들기름에 왜 이러한 물질들을 넣어 끓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들기름이 건성유(乾性油)이기 때문이다. 일부 식물성 기름은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해 그 산소를 고리로 하여 지방산이 다중결합하는 성향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산이 크게 합쳐져 고분자 형태를 띠게 되어 결국 액체가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성향이 강한 기름을 건성유라고 부른다. 이러한 건성유로는 아마씨기름, 유동(油桐)나무기름, 들기름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건조성향을 이용해 아마씨기름(linseed oil)은 유화를 그릴 때 안료를 개는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양화를 유화(油畫)라 부를 때 ‘아마씨유라는 기름(油)으로 그린 그림(畫)’이란 뜻이

17) 『숙종세자책례도감의례』(1667) 3방의례

18)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2001 ‘황단(黃丹), 만 이름은 연단(鉛丹) · 연화(鉛華)이다. 산화물 한약으로서 연(鉛)을 가공하여 만든 4산화3연(Pb₃O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인용

19) 이민우, 최고야, 이영중, 「XRD와 XRF를 이용한 무명석의 구성 성분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제33권 6호, 2018, 87-92쪽

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3 平安道 龍川郡 土産, “無名石 出 柳山”

된다. 유동(油桐)나무 기름은 동유(桐油)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 일찍부터 건물과 가구의 마감재료와 선박의 방수용으로 사용해 왔다. 동유(桐油)는 서양에 수출되어 텡오일(Tung oil)이라는 이름으로 도료로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아마씨 기름은 일찍부터 유화에 사용되고 도료 제조에도 사용되어 바니쉬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씨기름은 사용되지 않았고 동유(桐油)는 사용된 것으로 문헌에 가끔 등장한다. 그러나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동나무 키우는 법을 모른다고 한다.

中國桐油之用甚博 我東獨不知蒔藝油桐 故鮮有知桐油之爲何物者²¹⁾

(중국에서는 동유의 사용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만 유동을 키우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동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헌에 보이는 동유(桐油)는 유동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기름이 아니라 명유(明油)를 지칭하는 것일 확률도 있다. 『임원경제지』의 서유구는 ‘들기름을 끓인 것을 세속에서는 동유라고 불렀다(荳油製煉者俗呼桐油)’²²⁾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기름은 대표적인 건성유로 꼽히는 아마씨기름, 동유, 들기름 중에서 가장 건조도가 높은 기름이다.²³⁾ 건성유의 건조되는 성향을 표시하는 지표로 요드가(Iodine value)가 사용되는데 요드가 130 이상이 되어야 건성유에 포함된다. 아마씨기름(linseed oil)은 170~204, 동유(텡오일)는 160~175이나 들기름은 요드가가 193-20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²⁴⁾. 도료로 사용되었을 때 가장 빨리 건조해 피막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들기름이 상업적으로 제품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마씨기름(linseed oil)이나 동유(Tung-oil)의 성능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린시드오일이나 텡오일의 경우 그 속에 납성분의 건조촉진제를 첨가해²⁵⁾ 판매되어 왔으나

유해성이 문제가 되어 오늘날에는 망간이나 코발트 성분의 건조촉진제가 사용되고 있다. 조선조 왕조의례에 나타나는 명유(明油)에 첨가되는 건조제 역시 납성분의 황단과 망간 성분의 무명석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들기름을 바니쉬 용도로 사용한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중국에서는 동유에 들기름을 넣어 끓이는 경우²⁷⁾가 있지만 들기름이 주재료로 사용된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유(明油)가 가구와 건물의 마감에 사용되었고 일본에서는 들기름에 산화납인 밀타승(密陀僧)을 넣고 끓인 밀타유(密陀油)나 들기름에 송진을 섞은 찬유(チャン塗)가 건축물에 칠해져 왔다.²⁸⁾ 정창원(正倉院)에는 안료에 밀타유를 섞어 서양 유화처럼 그림을 그린 밀타회(密陀繪) 유물이 전해져 오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들기름에 밀타승(密陀僧)만을 넣었지만 조선에서는 밀타승과 비슷한 납 성분의 황단(黃丹)과 망간, 철 성분인 무명석(無名石) 그리고 백반을 첨가해 오늘날 식물성 바니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식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들기름을 주재료로 가칠장들에 의해 만들어진 명유(明油)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바탕색을 칠하고 그 바탕색을 보호하기 위한 도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의궤에서는 검은색 옷칠이 칠해진 그릇이나 가구는 흑진칠(黑眞漆), 송연(松煙)등으로 검게 칠한 후에 명유를 바른 것은 흑가칠(黑假漆)로 표시되고 있다.

헌종2년(1836년)에 순조와 효명세자의 신주를 태묘(太廟)에 안치하는 의식을 기록한 『순조대왕익종부묘도감의궤(純祖大王翼宗附廟都監儀軌)』에는 의식에 사용되는 제상(祭床)에 흑가칠(黑假漆)을 하고 제사용 굽이 높은 나무접시(木豆)와 희생(犧牲)을 담은 그릇(大牲匣)에는 흑진칠(黑眞漆)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제상의 칠은 가칠장이 담당하게 되고 목두(木豆)와 대생갑(大牲匣)의 칠은 옷칠을 담당하는 진칠장이 하게

21) 『임원경제지』권11, 만학지, 서울대학교 규장각, 15쪽 표지는 『林園經濟志』이나 서명은 『林園十六志』로 되어있음

22) 『임원경제지』권49, 섬용지, 서울대학교 규장각, 61쪽

23) L.L. Carrick, Vegetable oil paint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Oil Chemists' Society, 11, 1950, p.519 'Perilla oil has the highest iodine number of all the raw non-conjugated drying oils. It has excellent drying properties, which lie between those of tung and linseed oils.'

24) C. A. Lathrap, Iodine Number and Refractive Index of Perilla Oil,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merican Chemical Society, 1932, pp.826~827

25) Leslie Carlyle, Paint Driers Discussed in 19th-Century British

Oil Painting Manuals,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for Conservation, Vol. 38, No. 1, 1999, 69~82쪽

26) 명유를 의궤와 임원경제지를 토대로 실제로 만들어보면 유해한 납성분인 황단을 제외하고 무명석의 양을 배로 해도 건조시간과 성능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해성이 없는 명유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7) 北京市建設委員會, 『中國古建築修繕施工工藝』,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2007, 379쪽

28) 北野信彦, 『建造物塗裝彩色史の研究』 雄山閣, 東京, 2022, p.296 '密陀油ヲ造ルニハ荳油ヲ土鍋ニ入レテ火ニ掛ケ沸騰スルニ 至レバ 密陀僧ヲ入レテ..'

p.436 '傳統的なチャン塗料(ボイルした乾性油に松脂及乾燥促進劑である一酸化鉛を入れて作製)'

된다. 당시 가칠장은 장시영(張始榮), 진칠장은 윤경원(尹景元)이었다.

칠하는 방식은 다른 칠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명유를 바르게 된다. 『선조비인목후국장도감의궤(宣祖妃仁穆后國葬都監儀軌)』에서는 혼전(魂殿)의 어탑(御榻)을 칠하는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初着朱土次着黃丹又着朱紅終着明油 - 선조비인목후국장도감의궤(1632)

(처음에 주토를 칠하고 다음으로 황단, 또 주홍칠을 하고 마지막으로 명유를 칠한다)

왕실의 가구 중에 옷칠을 하지 않은 가구는 대부분 명유가 칠해진 가칠가구였다. 붉은색 가구의 경우 투명옷칠(每漆)에 주사(朱砂)를 섞어 칠을 한 주칠(朱漆)가구가 있고 당주홍이나 왜주홍, 반주홍 등을 칠한 후에 명유를 바른 가칠(假漆)가구가 있다. 현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에서 답장은 마감칠로 반주홍(礮朱紅)과 명유를 사용했고 책장에는 석간주(石欄朱)와 명유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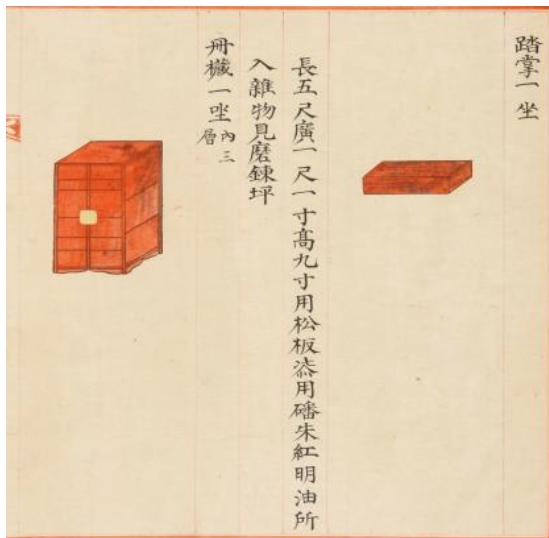


그림 4. 현종대왕효현왕후부묘도감의궤(1851년)

붉은 안료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왜주홍(倭朱紅)²⁹⁾을 칠하고 그 위에 명유를 칠한 경우에는 왜주홍가칠(倭朱紅假漆)이라고 부른다. 영조20년(1744) 10월에 대왕대비인 인원왕후(仁元王后)를 위해 행한 잔치를 기록한 『진연의궤(進宴儀軌)』에는 2방의 소요물품 중 큰 술상(酒亭床), 큰 찬탁자(大膳卓), 작은 찬탁자

(小膳卓), 내명부를 위한 술상(命婦酒亭床) 등 다양한 물품에 왜주홍을 칠하고 그 위에 명유(明油) 즉 가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상(饌案床)과 수건함(手巾函) 등은 옷칠을 하여 왜주홍진칠(倭朱紅眞漆)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기물이라도 명유를 칠한 가칠(假漆)물품은 옷칠을 한 진칠(眞漆)물품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제국 시기 탁지부에서 왕실 등에 필요한 물품을 기록한 탁지준절(度支準折)에 의하면 옷칠 중 정제되지 않은 칠인 전칠(全漆) 1되의 가격은 벼 3석에 해당하는 6냥6전6푼이고 명유 1되의 가격은 7전1푼이어서³⁰⁾ 가격 차이가 크다. 채색칠에 사용되는 투명 옷칠인 매칠(每漆)은 더 비싼데 1되에 10냥이 넘는 고가이어서 보다 중요한 물품은 옷칠을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물품은 명유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널리 사용되던 가칠은 왜 명맥이 끊기고 사용이 중단되었을까?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국장이 치러질 무렵이 되면 명유의 사용이 줄어들고 새로운 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명유 대신 양명유(洋明油)가 사용되고 있다.

內外着漆所入 同黃三斤 唐朱紅一斤 丁粉十五斤 阿膠四同 骨灰末末各七升 洋明油十五桶³¹⁾ -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1895)

(내외 칠하는 용도, 동황3근, 당주홍 1근, 정분15근, 아교 4동, 골회, 태말 각 7되, 양명유 15통)

이때 사용된 양명유(洋明油)는 서양에서 수입된 명유라는 뜻으로 일본을 통해 오늘날의 바니쉬와 같은 성분의 도료가 수입되어 사용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후 명유(明油)는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가칠장들도 건물의 도장에 명유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假漆所入 磊碌三十斤 丁粉一千五十斤 石紫黃一千五百斤 阿膠一百五十同 胡光油三十瓶 炭四石七斗³²⁾ - 중화전영건도감의궤

(가칠에 사용되는 물품, 석록 30근, 정분 1,050근, 석자황 1,500근, 아교 150동, 호광유 30병, 탄 4섬7말)

호광유(胡光油) 역시 오늘날의 바니쉬와 유사한 수

29) 왜주홍은 일본에서 생산된 주홍으로 『탁지준절』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해온 당주홍 가격의 배에 달한다.(倭朱紅 一兩七錢五分, 唐朱紅 八錢七分半)

30) 『탁지준절』, (서울대학교규장각소장). 32~33쪽

31)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1895년

32) 『中和殿營建都監儀軌』, [光武5-8年(1901-1904)]

입 도료로 보인다. 이는 수입 도료의 건조속도가 빠르고, 피막의 단단함이 명유(明油)에 앞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입도료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바니쉬는 강도가 강한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 도막의 탄력성은 부족하게 된다. 피막이 단단하고 습기에 강한 바니쉬이지만 목재에 도포하였을 때는 오히려 도막의 박탈이 일어나기가 쉬워진다. 바탕재인 나무는 습도의 변화에 따라 여름 장마철에는 팽창하고 겨울 건조기가 되면 수축하게 되는데 표면에 도포된 바니쉬가 탄력성이 부족해 같이 수축팽창을 하지 못하면 결국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 동유(桐油, 텅오일)의 경우도 명유와 피막을 비교해보면 동유는 빨리 건조하고 탄성이 없는 강한 피막을 형성하나 명유는 탄성이 있어³³⁾ 잘 부서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숭례문 단청 복원에서 명유가 아닌 동유(桐油)를 단청 표면에 바른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4. 문화재 복원에서의 가칠장(假漆匠)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현재 문화재 복원에 기준이 되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는 단청 공사 후 들기름칠을 하는 부분에는 ‘생들기름을 사용한다’³⁴⁾고 규정하고 있다. 볶지 않고 들깨를 압착해 만든 생들기름을 바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명유(明油)를 만들 수 있는 가칠장(假漆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유 대신 명유의 원료인 들기름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매연이 달라붙어 단청이 시커멓게 변할 우려 때문에 대부분 들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목가구에서도 명유(明油)가 없어 잘못된 마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형문화재 소목장 전수자들이 들기름도 아닌 동백기름(冬柏油)을 바르고 있으면서 그것이 전통이라 착각하고 있기도 하다. 소목장기능보유자였던 설석철은 경상, 각계수리의 제작을 마치고 마지막 공정으로 ‘동백기름 바르기’를 하고 있다. ‘전면에 사포질하여 곱게 다듬은 후, 동백기름을 칠하는 것은 경상과 동일하다’³⁵⁾고 작업과정이 설명되고 있다.³⁶⁾

33) 조선왕조의례의 명유 구성성분비에 따라 들기름, 무명석, 황단, 백반을 넣고 끓이면 여름철에는 24시간 이내에 건조되어 피막이 형성되게 된다. 유리판에 명유와 동유를 떨어뜨리고 건조시킨 후 만져보면 동유의 피막은 딱딱하나 명유는 딱딱하지 않고 신축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문화재청,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단청공사, 2019, 324쪽

이층농을 만든 김금철 역시 동일하게 동백기름을 바르고 다른 지역의 소목장 이수자들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³⁷⁾. 그러나 동백기름(冬柏油)은 동유(桐油)와 달리 불건성유로서 건조되지 않아 피막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동백기름을 바르게 되면 기름이 건조하지 않게 되므로 주변의 먼지가 달라붙어 시간이 지나면 가구가 검게 변하게 된다. 옷칠장인들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113호 칠장 보유자인 정수화 역시 정제칠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백기름을 끓여 첨가³⁸⁾하고 있다. 불건성유를 첨가해 옷칠의 건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투명칠인 주합칠(朱合漆)이나 춘경도(春慶塗)의 경우 동백기름(冬柏油)이 아닌 동유(桐油)나 들기름(荏油)을 넣고 있는데³⁹⁾ 동유와 들기름 모두 건성유이기에 올바른 선택으로 여겨진다. 조선왕조의례의 가칠장들은 의례 어디에도 동백유(冬柏油)를 사용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다. 소목장과 칠장들이 동백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전통이기에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장을 역임한 김삼대자는 ‘재래식 들기름은 먼지가 잘 앉아 자주 닦아 주지 않으면 때가 끼게 되며 나무색이 검게 변한다. 식용유 역시 들기름보다는 덜하지만 먼지를 잘 탄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수입 레몬오일을 사용하는데 가구를 닦는 데에는 재봉틀 기름인 광유(鑛油)가 가장 좋다.’⁴⁰⁾는 주장을 했다. 이는 전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목조문화재의 보존처리에는 사용될 수 없는 방식이다. 명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들기름을 도포하고 마른 천으로 닦아내는 것이 차선의 방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5) 김삼대자, 『소목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83쪽

36) 1984년 무형문화재 소목장으로 지정된 송추만은 문갑, 받닫이 등 가구를 제작한 후 들기름칠을 하고 있다. “완성되면 전체를 들기름 칠을 하고 들기름 칠하기 전에는 가는 여피가죽으로 문질러 곱게 표면을 다듬는다.”(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59호) 이 시기까지 전통장(箭筒匠) 등 다른 장인들 역시 들기름을 마감칠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어느 시기 들기름 대신 동백기름칠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37) 김삼대자, 위의 책, 109쪽

38) 국립문화재연구소, 『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민속원, 2006, 138쪽

39) 阿部芳郎, 宮腰哲雄, 『生活工藝双書 漆 1』, 東京, 2018, 58쪽

40) 김삼대자, 『빛깔있는 책들 전통목가구』, 대원사, 1994, 119쪽

4. 결 론

가칠장(假漆匠)은 진칠(眞漆)인 옷칠이 아닌 가칠(假漆)을 주로 하는 장인이었다. 가칠(假漆)은 옷칠인 진칠(眞漆)과 구별하기 위해 조선왕조의궤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는 유칠장(油漆匠)이 실록과 의궤에서는 명유장(明油匠)으로 기록되어 있다. 명유장이 기록에서 사라지는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명유장이 하던 역할은 가칠장에게 통합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칠장은 명유를 칠하는 일뿐 아니라 명유를 제조하는 일, 단청의 바탕칠을 하는 일까지 포괄해서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전이나 건축 관련 논문에서는 가칠장(假漆匠)을 단청 바탕칠을 하는 장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구의 제작이나 수리에 등장하고 있는 가칠장(假漆匠)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비록 단청작업에서 바탕칠을 가칠이라고 부르고 가칠장들이 이 바탕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가칠장이 단청 밑칠에만 종사한 것은 아니었다. 단청의 그림과 색이 모두 입혀지고 나면 다시 가칠장들은 명유를 끓여 그 위에 덧칠을 했음이 조선왕조의궤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단청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더 많은 분야에서 가칠장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선왕조의궤의 기록을 살펴보면 가칠장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가구가 만들어지고 난 후 표면에 칠을 하는 일이며 그 칠을 만드는 일 역시 가칠장의 임무였다. 가칠장들은 들기름에 산화촉진제인 황단과 무명석을 넣어 끓여 중합(重合)처리된 도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처리된 들기름은 건조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들기름은 건조에 한 달 넘게 소요되며 기온이 낮으면 수개월이 지나야 건조가 된다. 그러나 건조제와 함께 중합처리된 들기름은 도포한 다음날이면 굳어 기름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건조성능이 향상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내내 단청과 가구의 표면에 명유(明油)가 사용되었으나 구한말 서양의 바니쉬가 수입되면서 대체되어 사라지고 그 제조법도 잊혀지게 되었다.

오늘날 명유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납성분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조선왕조의궤의 명유제조법에서 황단을 제외하고 대신 무명석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칠장(假漆匠)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비로소 조선시대 내내 이어온 목조건물과

가구의 마감칠에 대한 전통을 복원할 토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칠장의 역할과 가칠장이 만들고 사용했던 명유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가칠장의 전통이 사라지고 그 전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목조문화재들은 관리와 복원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의궤』
- 『경국대전』
- 『조선왕조실록』
- 『일성록』
- 『대한제국 관보』
- 『경복궁영건일기』
- 『탁지준절』
- 『임원경제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 김삼대자, 『소목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 국립문화재연구소, 『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민속원, 2006
-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81호, 1970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2019
- 여찬영 외, 『의궤용어사전1』, 경인문화사, 2012
- 정종미, 『우리 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2001
- 김삼대자, 『빛깔있는 책들 전통목가구』, 대원사, 1994
- 北野信彦, 『建造物塗裝彩色史の研究』 雄山閣, 東京, 2022
- 阿部芳郎, 宮腰哲雄, 『生活工藝双書 漆 1』, 農文協, 東京, 2018
- 路化林 『中國古建築 油作技術』,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2011
- 北京市建設委員會, 『中國古建築修繕施工工藝』,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2007
- 김현중, 『조선시대 옷칠 정책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박지혜, 『한국유칠의 전통기법과 재현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C. A. Lathrap, Iodine Number and Refractive Index of Perilla Oil,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merican Chemical Society

56 논문

25. L.L. Carrick, Vegetable oil paint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Oil Chemists' Society, 11, 1950
26. Leslie Carlyle, Paint driers discussed in 19th-century british oil painting manuals,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for Conservation, Vol. 38, 1999
27. 北野信焉, 木多貴之, 佐藤則武, 「初期の日光社寺建造物に使用された赤色塗裝材料に関する調査」, 保存科學 No.49, 東京文化材研究所, 2010
28. 이민우, 최고야, 이영중, 「XRD와 XRF를 이용한 무명이의 구성 성분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제33권 6호, 2018

접수(2022. 07. 10)

게재확정(2022. 08. 30)